「제5회 사하모래톱 문학상 전국 공모전」 수상작

○ 수상작 현황

구 분		장르	작가명	작 품 명
운문	대상(1)	시	윤빛나	모래톱
	최우수(1)	시	김영욱	을숙도 억새
	우수(1)	시	김지영	모래경단
	가작(1)	시	김용철	모래톱의 오랜 기억
산문	대상(1)	소설	도일국	제5편리호 18시 20분
	최우수(1)	동화	김자미	어린왕자와 고니
	우수(1)	동화	최덕천	아미산의 아기다람쥐와 도토리
	가작(1)	동화	김영호	할아버지 찾기

목 차

1. 운문 대상(모래톱) ····· 1

2. 운문 최우수(을숙도 억새) ····· 3

3. 운문 우수(모래경단) ····· 5

4. 운문 가작(모래톱의 오랜 기억) ····· 6

5. 산문 대상(제5편리호 18시 20분) ····· 8

6. 산문 최우수(어린왕자와 고니) ····· 25

7. 산문 우수(아미산의 아기다람쥐와 도토리) ····· 31

8. 산문 가작(할아버지 찾기) ····· 36

운문 대상 : 모래톱

윤 빛 나

몇 겹 이빨로 사납게 오르내리던 수난의 고집쟁이
가막조개 부둥켜안은 모래들의 습관이 긁어대던
똥색 월급봉투, 사그락 사그락
그 이름, 빨갛게 달구어진 희망 한 사발을 건네주던 사막.
붉은 노동 한 잔의 입을 걸어 잠근
숯검댕이 아버지 낡은 어깨죽지가
짊어지고 오던 막걸리 냄새 절뚝절뚝
그리움 푹 푹 빠지는 신평공단길 골목창 지나
개망초 피는 집에 갓난쟁이 발톱들이 찾아오면
그 자옥한 찬장을 열어, 한 홉 사하의 꿈 물려주시던 어머니.
가시리 풀 끓여 신문지 발라놓은 둥지는 만원(滿員)이었다.
냉이꽃 찌그러져 검은 모기 한 마리 갇혀있던 동공 속
양은빛 하오(下午)를 비추던 오래된 저녁.
섬돌 위에 사람 인(人)자 걸쳐놓은 검정 고무신 십일 문짜리
몇 땀 꿰매 신은 작은 바다가 데리고 온
발가벗은 생멸(生滅)의 알갱이들.
참빗 쟁기를 끌어 뚝 뚝
무명(無明)의 옷을 벗기던 안개의 머리카락.
곱게 빗겨놓은 모래 언덕.
깊고 긴 강물의 비밀만큼 쌓이고 만나서
종잇장처럼 헤어지던 방목지.
사철 농구(農具)같이 구부러진 손가락.
푸르른 전설이 기어 와서
사하의 궁전을 짓던 모래의 고향.
청보리 빛 목소리 들리는 선잠결에
사하의 노래가 여울져오면
사글셋집 달빛 이불을 끌어당기는 새벽

울엄마 달여놓은 재첩국 한 양동이 보글보글
부추빛 사랑 한 다발 썰어놓고
일나이소, 일나이소, 아버지를 깨우던 멀구슬나무 소반상
뒷문 밖 재두루미 엄마, 팔십 살 먹은 괘종시계
새벽밥을 먹여놓고, 모래톱을 본다.

운문 최우수상 : 을숙도 억새

김영욱

저것은 기다란 은빛 물고기

한때는 물 맑고 먹이 많던 바다에서
자손대대 번식을 약속했으나
바람에 살 다 뜯기고 뼈만 남아
하얗게 샌 머리칼을 부비며 하늘과 땅을
수직으로 가르고 서있다

감기지 않는 눈망울은 어둠 속에 감춰두고
꼬리지느러미를 면사포처럼 흩날리며
바람을 뿌옇게 애태우고 있다

그래도 한때는 옆선을 세워 물결을 주름잡던
저것은 은빛 물고기

어느새 제 속을 다 비우고 뭍으로 올라와
물구나무 자세로 허리를 살랑이며
달빛 아래 칼춤을 추고 있다

바람과 바당이 흘레한 밤마다
날개를 훔치다 푸새가 되었지만
물의 나이테를 부력으로 키워온 습성대로
바람의 갈기로 구름의 올가미를 만들고 있다

언젠간 하늘 끝까지 자맥질하고 싶던 욕망만큼
남몰래 부레를 부풀리는 몸부림이여,

맞은바라기에서 들려오는 겨울 소식에
날로 여위어가는 은빛 날개여,

앙상해서 더욱 우아한 변신이어라.

운문 우수상 : 모래경단

김지영

잔치가 벌어졌다아입니꺼
울 할매가 안보고도 척척 맹그는 만두맹키
동글동글 경단이 넓은 사장에 항거석인기라예
이래 빠르고 솜씨 좋은 기 누구 작품인고 궁금하지예
달랑게라고 있심더
부끄럼이 많아가 대낮에는 모래집에 숨어있지예
그카다가 어두버지모 실찌기 나와가
눈자루 끝에 달린 크담한 눈동자를
요래조래 굴리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븐가 말도 몬함니더
달랑달랑 집게발로 모래를 떠가 먹고는
남은 찌꺼기로 예쁜 경단을 만든다아입니꺼
뒷설거지를 요래 멋지게 하는 청소부 보셨는교
덕분에 다대포에 가모 나래비 선 경단을
우리한테 날마다 선물로 준다아입니꺼
오늘도 선물 받으러 함 가보까예

운문 가작 : 모래톱의 오랜 기억

김용철

아버지가 고기잡이 나가신 날이면
설빔을 자꾸 입어보던 어린 밤이
강변 나루에 애기부들처럼 서성였다
어머니는 밤새 대청 작은 팔각상 위 놋그릇이
부처님인 양 절을 했고
건넌방 누이의 짚단 같은 이불 속은
음악방송 주파를 맞추느라
모스 신호기 두드리는 공비보다 신중했다

지난 밤 비는 강을 억수로 뒤집어 놓았을 거다
윗물에 놀던 놈이나 수문에 서성이던 숭어들도
물이 잔뜩 올랐을 거라며
원양어선 선장이 된 양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
나룻배를 저어 가신 아버지
사라지는 배를 보며 돌아오던 길
논두렁을 달리던 연두색동 고무신도
물고기 마냥 팔딱거렸다
그날 밤 강물은 수문을 넘고 강둑을 밀어냈다
아침 나루터에는 수초에 엉켜 찢긴 그물이
아버지 주름처럼 놓여 있었다
비가 며칠째 내리고
포구에 묶인 배의 기척이 외기러기 울음이 되어
어두운 허공을 밟고 사라졌다
강이 둑이 넘던 날
아버지의 나룻배는 바다가 되었다
물이 빠지던 날 하구언에는
강변 가장자리 수풀보다 넓은 모래톱이

아버지의 만선처럼 떠올랐다
갈대머리를 풀고 물고기처럼 주변을 서성이다
해질 무렵 서쪽 하늘이 바다에 붉은 울음을 짙게 토하고서야
집으로 돌아 온 오래된 기억이 있다.

산문 대상 : 제5편리호 18시 20분

도일국

"호외요! 호외!"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는 7월 초 유난히 습하고 더운 날이었다. 그러나 후텁지근한 날씨와는 달리 유엔군과 공산군과의 휴전회담이 개성에서 열리고 있다는 "국제신문" 호외와 이따금씩 길가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회담 관련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곧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하루였고, 전쟁을 피해 부산까지 내려온 피난민들은 고향에 돌아갈 꿈에 부풀어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여념이 없던 하루이기도 했다. 심지어 외출 나온 군인들은 휴전의 기대감 속에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런 탓일까 귀대하는 다대포 육군병참학교 군인들이 얼근하게 취한 목소리로 항구의 한 구석에서 현인의 "전우야 잘 자라"를 흥얼거리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전쟁 종식에 대한 희망과는 달리 충무동 남항 부두에는 세찬 바닷바람이 '제5편리호'의 마스트에 달린 태극기와 "다대포간순항선조합"이라 새겨진 회사의 깃발을 찢을 듯이 몰아치고 있었고, 쇠말뚝에 정박용 밧줄로 묶어 놓은 배는 거센 파도에 부딪혀 "끼…… 끽, 쿵!"하는 소음을 간헐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었다. 오후 4시 40분. 출항 시간을 20여 분밖에 남겨두지 않았지만 제5편리호를 타고 부산에서 다대포로 가려는 인파들은 여전히 승선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제5편리호"조타실에는 부산 해사국에서 날아온 전문이 소리를 내며 노란 용지 위에 글자를 새기고 있었다. "탁탁, 타다닥……." 전문을 받아든 항해사 박태수는 지체 없이 선장을 찾았다. 창문을 통해 물끄러미 사람들이 승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김순효 선장은 박태수가 건네준 부산 해사국의 두 문장으로 된 전문을 무심히 펼쳐보았다.

「17시를 기해 부산 앞바다 일원 풍랑주의보 발효. 평수구역 제9구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할 것.」

배의 만재흘수선은 이미 부산 남항의 기름띠 두른 바닷물 아래로 내려가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운항 가능한 적하 중량이 이미 다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다. 김순효 선장은 기관실에 연락해 배수 가능한 평형수의 양을 확인했지만 이미 하중 조절용 평형수 탱크는 비어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는 승객과 화물의 적재가 더는 불가하다는 의미였지만 다대포항으로 돌아가려는 승객들의 행렬은 좀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법정 승선 인원 91명을 초과해 현재 승선 인원 158명이며 그들이 들고 있는 수하물과 일반 화물을 포함하면 이미 적재가능중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운항에 무리가 예상되니 어떤 조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기사로 발령 받아 “제5편리호”에 승선해 처음으로 조타수 겸 1등 항해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박태수는 풍랑주의보의 발효에 따른 항해의 위험 요인을 요약해 선장에게 보고했다.

“무슨 조치 말인가? 승객들을 하선 시키기라도 해야 된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17시 현재 외항 파고가 3미터, 바람이 초속 14미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사국에서는 다대포 육군병참학교 군인들의 귀대 문제로 출항을 허가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승선 인원을 초과해서 운항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바다의 상태를 보면…….”

“그럼 승객 중 일부를 하선 시켜야 한다는 말인데…….”

김순효 선장은 전쟁 물자로 나온 군용 ‘말보로’ 담배를 한 개비 피워 물고 길게 연기를 내뿜자 좁은 조타실은 금세 담배연기가 잿빛 물감처럼 번져갔다. 출항 때마다 매번 이런 북새통을 겪는 선장이었지만, 오늘의 상황은 바다의 날씨도 좋지 않은데다 승객들까지 밀려오니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육군병참학교 학생들과 군인들은 귀대 날짜를 어기면 안 되었고, 푸성귀와 멸치 젓갈과 같은 다대포의 주산

물을 자갈치에 내다 파는 상인들 역시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라 이 배를 놓치면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었다. 자신의 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장으로서 이런 날씨에 무리한 운항은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기에 밀려드는 승객이 달갑지만은 않았다. 더구나 선령이 이미 24년을 넘었고 얼마 전 적재 중량을 17톤에서 30톤으로 개조해 운항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걱정은 한층 더 깊어졌다.

김순효 선장이 조타실 전면에 걸려 있는 벽시계를 쳐다보자 시간은 이미 출항시간인 5시를 지나고 있었다. 부두에 웅성거리던 인파들도 대부분 승선을 완료한 상태였다. 평상시 같으면 초과 승선이 일상이라 예사롭지 않은 듯 출항을 했겠지만, 오늘의 기상 상황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출항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김순효 선장은 배의 승선 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조타실을 나와 배의 통로를 따라 객실로 내려갔다. 복층 구조로 된 상층 객실은 승객들은 제각각 자리에 앉아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래층 하부 객실에는 이미 좌석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선실 복도에까지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행인 듯한 승객들은 삼삼오오 자리를 깔고 앉아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고 일부 군인들은 취기로 객쩍은 소리를 지껄이고 있었다. 가득 찬 담배연기만이 객실의 공간을 부유하며 노곤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사이를 유령처럼 휘젓고 다녔다.

“선장님, 배 출항 안 하나요?”

김순효 선장의 근심어린 눈빛을 마주한 한 광목 치마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자가 발치의 좌석에 앉아 말을 건넸다. 그녀의 주변으로는 예닐곱 살 됨직한 몇몇 아이들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전쟁이 낳은 후방의 벌거벗은 거리에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떠돌다 경찰의 보호 아래 있던 아이들이었다. 거처가 결정이 되면 일부는 입양 기관을 통해 외국으로 입양이 되어 갔고 또 다른 아이들은 피난지에 산재한 고아원으로 보내져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다. 매달 한 번씩 다대포고아원에서 고아나 부랑아들의 임시 거처에 들러 아이들을 인솔해 가는 것을 아는 김순효 선장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최숙혜 총무를 익히 잘 알고 있었다.

“네…… 최 선생님. 아직 출항 허가가 안 떨어져서…….”

김순효 선장은 사실을 숨긴 채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는데 최숙혜 선생이 다시 그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선장님, 오늘 우리 고아원에 새로 들어올 아이들이에요. 얘들아, 선장님께 인사드려라.”

아이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말을 건네는 둥 마는 둥 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 그래, 얘들아, 구명조끼는 다 잘 착용했니?”

“네, 제가 다 챙겨 입혔어요. 그런데 다들 크고 낡아서 잘 맞지가 않네요.”

“그래도 잘 챙겨 입히세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니까요.”

구명조끼라 해야 전쟁 통에 제대로 된 것이 있을 리 없었고 다대포와 부산 남항을 오가는 1시간 남짓한 운항 거리에 누구도 조끼를 입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매번 이 뱃길을 오가는 최숙혜 선생은 아이들을 인솔하는 책임자로서 준수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안전이었기에 객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구명조끼를 챙겨 아이들에게 입혀 놓은 상태였다. 여자 아이 둘, 남자 아이 셋 이렇게 다섯 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묻은 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제5편리호의 선실에 몸을 싣고 있었다. 오후 5시 20분.

출항시간을 넘겼지만 김순효 선장은 출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풍랑주의보에 이어 시정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고 승선한 승객 수가 이미 183명에 이르러 출항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김순효 선장은 박태수와 기관장 함춘삼을 조타실로 불렀다. 17톤 규모의 작은 배이니만큼 선원이라야 선장과 해기사 박태수 그리고 기관을 담당하는 함춘삼과 배의 허드렛일을 하는 두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이 고작이었다.

“조타수, 어때…… 갈 수 있겠어? 지금 상태로는 너울이 3미터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방파제 밖은 말이야……. 그리고 승선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자네 생각은 어때?”

"…… 정원이 91명인데 오늘은 승객 수가 이미 183명입니다. 아무래도 풍랑주의보에 시정도 좋지 않아 승객 중 일부를 하선시키고 운항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내 생각도 그런데…… 이번 신규 운항 허가 전에 정원은 54명 아냐? 그럼 정원의 세 배가 넘는 인원인데…… 근데 누구를 하선 시키지? 승객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더구나 오늘은 병참학교 귀대 장병들이 많아 걱정이야. 자네가 하선이 가능한 승객을 선별해서 하선을 종용해보도록 하게. 설령 출항 시간이 더 늦어져도 어쩔 수 없지. 지금 방파제 밖으로는 너울이 상당해. 저기 방파제에 부딪치는 물보라 좀 보게, 엄청나지 않나?"

김순효 선장은 고개를 들어 조타실 바깥을 쳐다보며 방파제에 막혀 내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부서지는 커다란 파도의 포말을 가리키며 조타수와 기관장의 동의를 구하려는 듯이 두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 그들은 지금의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이 매일같이 다대포와 부산을 오가는 뱃길이라 그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더구나 평소에도 증원을 초과해서 운항하는 것이 보통인지라 승객들이 설득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선장님, 이런 너울과 바람에는 저 혈청소를 돌아 나가는 항로에서 옆바람을 받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최대한 하선을 설득해보겠습니다. 저희 배 법정 정원이 91명이고 지금 승선인원이 183명이니……."

박태수는 선장에게 간단한 목례를 하고 조타실을 나와 승객들이 있는 선실을 향해 서둘러 나갔다.

"함 씨 생각은 어떻소? 갈 수 있겠소?"

"아이고 선장님요! 이 정도야 괜안심더. 혈청소 앞바다만 돌아가면 바로 다대포 내항인데 뭔 걱정입니꺼? 얼마 전에 배 적재 중량 늘일 때 엔진도 다 손봤다 아임니꺼. 마…… 걱정 없습니데이. 지가 옛날 키무라 선장하고 일할 때는 200명도 더 태운 적도 있심더. 걱정 마이소!"

"그래요…… 아무래도 오늘은 바람이 너무 심하지 않소? 저기 보시오. 방파제에

파도가 부딪치는 게 태풍 때 못지않은 것 같은데…… 혈청소 아래 옆바람이……”

“아이고…… 이 배 끄떡없십니더! 혈청소 아래 바다가 갑자기 깊어지는 탓에 너울이 배를 바닷속 깊이 끌고 들어가긴 해도…… 마, 괘안심더! 일본 선장 있을 때는 다대포 양곡이다 뭐, 젓갈이다…… 공출물 이빠이 싣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잘 다녔다 아임니꺼. 이 배가 그래도 왜놈들 미쓰비시 엔진 달고 있어 걱정 없심더! 얼마 전 안전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없었고…… 톤수를 17톤에서 30톤으로 늘린 기 좀 걸리긴 해도……. 그래도 승객들 내리라 카몬 병참학교 군인들이 난리도 아닐겁니더. 마…… 가입시더! 별일 없을 낍니더.”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이까짓 바람쯤이야 일본제 미쓰비시 엔진을 어쩌지 못한다는 강한 신념이 눈빛에 이글거렸고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중늙은이의 고집까지 더해져 마치 김순효 선장의 소심함을 비웃는 듯한 투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순효 선장은 그의 말에 고개만 조금 주억거릴 뿐 가타부타를 말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다. 그는 박태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먹장구름이 가득한 하늘과 검게 변해버린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다시 피워 물고서 길게 연기를 창을 향해 내뿜었다. 그리고는 옆에 서서 선장의 지시를 기다리며 쭈뼛대고 있던 함춘삼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기관실을 철저히 점검한 한 후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키를 잡고 스크루의 움직임과 마스트의 깃대가 움직이는 방향과 세기를 가늠해 보았다. 오후 5시 40분.

“아…… 아!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배에 승선하신 승객 분들 가운데 오늘 다대포에 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시면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 정원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항해할 수 없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산에 하루 머물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 식사와 숙소를 마련할 테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선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가 선장을 보좌하는 1등 항해사의 자격으로 객실 앞에서 확성기로 안내 방송을 하자 콩나물시루처럼 선내에 빼곡했던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귀대를 하기 위해 여기저기 모여 앉아 노닥거리던 군인들 일행과 12일에 열리는 하단 5일장에 나서던 도부꾼들이 불만에 찬 소리로 투덜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그 중 텁수룩한 중년의 사내가 일어나 객실을 한 번 휘익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아니, 항해사 양반인지 누구신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지는 알아듣기가 참 애럽구만유. 여기는 보시다시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지 같은 장꾼들하고요. 저기 군인 나리들 그리고 다대포에서 오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인디…… 대체 누가 이 중한 길을 양보할 수 있간디요? 아니 그렇소? 여러분들!”

“옳소! 뉘신지 모르지만 말 한 번 잘 하셨소. 우리 군인들도 오늘 귀대하지 않으면 탈영병으로 쫓기는 몸이 될 터인데 그걸 누가 책임질 수 있겠소? 아마 이 회사를 다 팔아도 다 감당이 안 될 것인데. 허허…….”

“옳소! 그냥 모두 태우고 갑시다! 한두 번 배 탄 것도 아닌데…….”

이미 예상은 한 터였지만 박태수는 승객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심한 것에 적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다시 목청을 가다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배안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더해 배는 좌우로 크게 일렁이고 있어 제대로 서 있기 조자 힘든 지경이었지만 박태수는 선실 문의 손잡이에 의지해 다시 한 번 더 승객들에게 호소했다.

“아! 아…… 지금 부산항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시정도 극히 나쁘다는 부산 해사국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 인원까지 초과해서 운항하면 배가 위험해 질 수 있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 부산에서 묵어도 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득이한 조치이니 협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귀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라요? 여기 우리 짐들 안 보인다요? 내일 못 팔면 말짱 황이여 황!”

“항해사 님! 저희들이 하선할게요! 저와 여기 애들 모두 여섯입니다!”

객실의 앞쪽 모퉁이에서 카랑카랑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소란했던 실내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일제히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소리 나는 쪽을 향했다.

“저는 다대포교회의 총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 가는 아이들 다섯 명과 함께 하선하겠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배의 운항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굳

이 오늘 다대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선사 측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군요. 얘들아, 모두 일어나거라. 선생님과 함께 나가자.”

“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묵을 곳과 식사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아네요. 저희들 임시 숙소가 부산에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기상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여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저희들도 웬만하면 그냥 출항할 텐데. 보시다시피 지금 파도가 예사롭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렁이는 배를 조심스레 빠져나온 최숙혜 선생이 몰아치는 바람과 마주한 채 바다를 보니 파도에 부딪히는 배가 생각보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배에 남아있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서둘러 아이들과 함께 부두를 벗어났다. ‘하느님, 부디 별 일 없기를……’ 오후 5시 50분.

최숙혜 선생과 아이들이 하선을 하자 나머지 승객들 중에 그녀의 뜻에 공감했거나 하루를 부산에 머물러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 모두해서 13명이 하선을 결정했다. 애초에 승선했던 183명 중 13명이 하선하고 난 후 170명의 승객이 승선했다는 박태수의 최종 보고를 들은 김순효 선장은 그래도 79명의 승객이 초과 승선한 상태라 섣불리 출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회사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무선통신망에서 자신들을 호출하는 소리가 들렸다.

“편리호, 편리호, 여기는 조합 상황실입니다. 조속히 출항하세요! 정시보다 50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사국에서도 출항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속히 출항하세요! 이상!”

배의 밑바닥을 때리는 파도 소리가 귓전에 시끄러울 만큼 크게 들렸고 배의 흔들림 또한 마치 대해에 나가서 항해하는 것과 같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순효 선장은 승객들의 아우성과 회사의 지시에 더는 출항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선으로 출항 신고를 하고 갑판의 부원에게 부두에 묶여있던 배의 정박용 밧줄을 풀라는 지시를 내렸다. 오후 6시 정각, 1시간 지연 출발.

김순효 선장은 일렁이는 배의 갑판과 부두를 오가며 정박 중인 배의 밧줄을 능숙하게 풀어 감아올리는 갑판부원을 창밖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며 다대포교회의 최 선생과 아이들이 하선했다는 보고를 떠올리자 문득 알 수 없는 안도감에 마음이 편해졌다. 배에서 일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언제나 항해는 조심스러웠고 더구나 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을 때에는 더더욱 신경이 곤두서는 것은 단순한 직업병이라기보다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갖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으로 인한 것이었다.

둔탁한 파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5편리호”는 방파제 밖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는 배의 미끄러짐이 완만한 것을 몸으로 느낀 김순효 선장은 키를 박태수에게 맡기고 승객들의 상황을 살피러 객실로 내려갔다. 객실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원래의 정원 숫자와 비슷한 50개 정도일 것이고, 갑판의 난간에 매달린 타이어도 고작 20개 남짓이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승객 모두가 그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 실상을 확인하고픈 생각에서였다.

배는 정상 속도인 7노트보다 1노트를 떨어뜨려 운항되고 있었지만 김순효 선장이 갑판으로 나오자 배의 롤링과 피칭이 심해 제대로 걸음을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 온몸에 파도를 뒤집어 쓴 채 갑판 난간을 잡고 승객들이 있는 선실에 이르렀지만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선장은 출입문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손잡이를 돌리고 나서야 겨우 선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불과 1분여의 상황이었지만 바다를 잘 아는 김순효 선장에게 이번 운항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바다는 거칠었다. 겨우 선실 안으로 들어간 김순효 선장은 먼저 구명조끼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앞좌석에 앉은 군인 몇 명만이 하선했던 아이들과 최숙혜 선생이 착용했던 조끼를 입고 있을 뿐이었다.

“승객 여러분! 저는 선장입니다! 자기 주변에 구명조끼가 있으면 찾아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가 있으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먼저 착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십시오!”

“무슨…… 구명조끼? 바로 코앞에 가는데 구명조끼를 입으란 말이오? 허허, 참…… 그래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양보합시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군인과 건장한 도부꾼들 그리고 다대포와 부산을 오가며 행상을 하는 주민들이었기에 아이들이라야 몇 명 되지 않았고 나이 든 노인들은 손꼽을 정도였다. 승객들은 배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알고 선장의 말에 마지못해 협조하는 모양새였다.

"선실의 뒤쪽에 10인용 구명보트가 따로 비치되어있습니다. 바다에서 자동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으니 만약의 경우 그 보트를 타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바깥의 갑판 난간에 타이어가 있으니 그것 또한 유사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장으로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너무 염려 마시고, 특히 병참학교 군인과 학생들은 군화 끈을 모두 풀어놓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영에 방해가 될 테니까요."

웅성거리는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겨우 객실의 복도에 서서 뒤편에 있는 구명보트의 상태를 살피니 다행히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 서둘러 배 밖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선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함춘삼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장님! 선장님예, 조타실로 급히 좀 오이소!"
"왜, 무슨 일이요?"
"항해사님이 급히 찾습니데이!"

그 순간 갑자기 배의 옆면으로 무언가 부딪힌 것 같은 강한 충격과 굉음이 들리며 배가 한쪽으로 급격히 쓰러지는 것이었다.

"쾅! 쿠쿵!"
"아! 어, 어…… 무슨 배가…… 왜? 이래! 아! 악!"

승객들이 배의 한쪽으로 쏠리면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김순효 선장은 배가 급격히 기울어짐을 느끼고 몸을 굽히고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해서 선실 입구로 향했다. 파도가 선체의 한쪽으로 부딪쳐 하얀 포말이 선실 창가를 덮쳤고 배가 기울어져 바다 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기관장! 여기 선실 입구에서 승객들의 동요를 막도록 하고, 만약의 사태에 승객들을 돕도록 하게. 난 얼른 조타실로 가봐야 해!”
“예, 알았심더!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조타수! 배가 왜 이래?”

김순효 선장은 조타실로 들어가자마자 박태수로부터 키를 넘겨받았다. 키는 마치 스크루에 추를 달아놓은 것처럼 무거웠고 배의 방향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까…… 방파제를 빠져 나오는데 파도가 심하게 배를 때리고 난 후부터 그렇습니다. 아마…… 스크루에 무언가 감긴 것 같습니다.”

박태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었지만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치를 김순효 선장에게 내놓았다. 배는 이미 방파제를 빠져 나와 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직진하고 있다. 조타 계기에는 배가 서남향 260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속력은 시속 6노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김순효 선장은 일단 배의 저항을 줄이고자 속도를 5노트로 낮추고 배의 옆면에서 다가오는 3미터가 넘어 보이는 파도를 가능한 정면으로 받고자 배를 먼바다 방향으로 항로를 변경했다. 운항 거리가 좀 더 멀어지더라도 일단은 옆 너울을 피해 운항하는 것이 배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파도가 좀 잦아들면 다시 방향을 반대로 하여 배의 선미 에서 파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배가 먼바다로 향하자 거대한 파도의 정점에 올랐다 떨어지는 배의 선수에는 파도가 남긴 하얀 포말들이 넘쳐났다. 하얀 포말의 끝자락들이 마치 거대한 문어의 다리처럼 조타실의 유리를 휘감았다 사라지곤 했다. 조타실의 김순효 선장은 그가 경험했던 가장 거대한 너울 앞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지만 실내의 누구도 그 낌새를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침착하게 배를 통제했다. 정면에서 받는 파도의 압력은 거대했지만 배가 복원하는 데에는 측면에 힘을 받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라 다소 안심했다. 배는 이미 혈청소 언덕을 뒤로 하고 먼바다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김순효 선장은 위기에 대비하여 박태수를 향해 비상시를 대비한 점검을 하게 하였다. 비록 상황은 심각하였지만 그의 태도나 음색은 전혀 동요의 기색이 보이지 않아 선장으로서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오후 6시 10분.

“조타수,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 파도의 크기가 족히 3미터는 넘어 보여. 이 정도면 우리 배가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승선 인원이 몇 명이랬지?”
“네, 정확히 170명입니다! 다대포교회 최 선생과 아이들을 포함한 하선한 13명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 지난번 배의 선실을 증축하기 전 정원 54명의 3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비록 지금 정원을 91명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지만 실제 이 배의 크기로는 54명 정원이 적정 인원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박태수는 선장이 자신에게 물어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자신이 참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 전에 배를 증축하기 전과 후의 상황을 나눠서 답변을 했다.

“배 난간에 묶여 있는 구명용 타이어의 줄을 느슨하게 풀어 놓게! 지금 당장! 배에 이상이 생기면 배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빨리!”
“네, 알겠습니다!”

선실의 승객들은 평소와 다른 배의 방향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커다란 너울이 만들어내는 배의 출렁임에 속이 뒤집힐 것 같은 멀미 증세로 배의 항로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다대포의 육군병참학교 이정태 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귀대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군화 끈을 풀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혁대의 버클을 모두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의 지시는 단호했고 민간인들이 공포를 느끼지 않게끔 낮은 목소리를 견지했다.

“어이, 김 일병! 연세 드신 분이나 여자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으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구명조끼가 많이 모자라니 병사들이 하고 있는 조끼를 양보할 수 있겠나?”
“네, 이미 저희들이 입었던 조끼는 출항 전에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현재 병사 모두 조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혹 착용이 잘못된 사람을 찾아 바로 입히도록 하고, 병사들 역시 만전을 기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게. 아마…… 이 배의 승선 인원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모두 몇 명 승선했는지 즉시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배를 타고 있는 육군병참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군인들이 모두 37명이었다. 이정태 대위는 병사들을 배의 전면과 후면 그리고 중간 복도 부분에 배치하고 위기 상황에는 전투 시와 같이 행동하도록 지시한 후 조타실로 향했다.

조타실에 이르러 급히 문을 잡아 당겼지만 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다. 이정태 대위는 문을 맨손으로 부러져라 몇 번을 두드리자 온몸에 바닷물을 뒤집어 쓴 채 방금 갑판에서 돌아온 박태수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배가 너무 무거워요. 헉헉…… 승객이 초과 승선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배의 스크루에 이물질이 감겨있는 것 같습니다. 컥! 배가 옆바람과 큰 파도를 맞으면 위험할 수도…… 가능한 파도의 저항을 정면과 후면으로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항로를 해안 쪽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취!"

배의 키를 잡고 안간힘을 쓰며 배의 진로를 지탱하고 있던 김순효 선장 대신해서 박태수가 헉헉거리며 현재의 처한 상황을 이정태 대위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이정태 대위는 자신이 객실에서 조처한 내용들과 자신과 병사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선장에게 알렸다. 자신이 승객들의 안전에 병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과 함께 배의 운항에만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그때 조타실 무전기에서 "제5편리호"를 급히 호출하는 소리가 들렸다.

"제5편리호, 편리호! 여기는 운항 통제관입니다! 배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배에 이상이 있는 겁니까? 항로를 이탈하지 마세요! 좀 더 내려가면 해군 작전 지역입니다. 어서 뱃머리를 연안으로 돌리세요! 제5편리호,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이상!"

연안 운항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1무선망에서 통제관이 배의 항로 이탈 상황을 레이더로 감지하고 호출한 것이었다. 항로를 부득이하게 이탈을 할 경우 먼저 운항국에 보고를 해야 했지만 김순효 선장이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보고를 하지 못한 탓이었다.

"운항국, 여기는 편리호 김 선장입니다! 지금 배의 스크루에 문제가 있고 파도가

너무 높아 옆바람을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바람을 배의 전후에서 너울을 받는 운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 작전 구역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지금 먼바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빨리 항로를 변경해 정상 항로로 돌아오세요! 더 나가면 위험합니다. 이상!"

"잘 알았습니다. 이상!"

김순효 선장은 먼바다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파도가 다소 잠잠해지자 뱃머리를 우현으로 꺾은 후 다시 해안 330도 방향으로 선수를 돌렸다. 멀리 다대포 내항이 시작되는 두송반도 등대의 불빛이 22시 방향에서 규칙적으로 바다를 가르고 있었다. 김순효 선장은 선미에서 바람과 파도를 받도록 해서 내항까지 갈 요량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선장의 희망에 불과했다. 배가 무리하게 방향을 바꾼 탓인지 배의 스크루에 걸린 이물질이 더 단단히 엉킨 것처럼 조타가 되지 않았다.

"조타수! 이런…… 크, 큰 일 났어…… 배가 말을 듣지 않아! 얼른 구조 신호를 보내게, 얼른!"

"해사국 나오세요! 해사국! 배가 방향을 잃어……."

"구조 신호를 수상경찰 무선망으로 빨리 보내세요! 빨리! 배가……."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제5편리호!"

"…… 쾅! 우르르…… 와장창! 쾅!" 오후 6시 20분.

조타실 뒤쪽 갑판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더니 갑자기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 파도의 정점에 올라 선 배가 우측으로 "쿵!" 하고 내려앉으며 심하게 요동쳤다. 복원해야 하는 시기를 놓친 경우에 배는 무게중심의 변화를 감내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온다. 배가 부르르 떨리면서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제대로 균형을 잡을 수 없게 된다. 사시나무 떨 듯 배가 떠는 것을 느낀 김순효 선장은 온 힘을 다해 키를 좌현으로 돌려 배를 회복시키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조타수! 아…… 배가……"

"쿵! 와지끈! 쿵, 콰쾅!"

이정태 대위는 다시 객실로 돌아와 선내의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마치 전투에 임하듯 각자의 위치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치더니 갑자기 몸이 하늘로 솟구친 후 급격히 아래로 떨어졌다. 마치 절벽에서 수직 낙하하는 듯한 기분이 든 순간, 배 안의 모든 등이 꺼지고 승객들의 아우성 소리가 그의 귓전에 어지럽게 파고들었다.

"아, 악! 사람 살려! 아, 안…… 돼!"
"어…… 어…… 사라…… 살! 악!"

순식간이었다. 암흑이 배를 지배하더니 곧 이어 승객들의 몸뚱이가 거꾸로 처박혀 나뒹굴자 주변에 널려있던 잡동사니들이 함께 어지럽게 흩어지며 혼란을 더했다. 곧장 바닷물이 선내에 밀려들었다. 순식간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말았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바로 무시무시한 공포였다. 이런 극한의 공포 속에서 이성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승객들의 비명소리만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대변했다. 이성이란 사고할 수 있을 때 작동하는 것이다. 공포가 뇌를 지배하면 더는 이성에 기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처참한 사투의 현장이었다.

"아…… 으아악! 사! 읍! 푸우…… 악!"
"쾅! 우장창! 쏴…… 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더니 배는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가라앉았다. 그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도 바다에서 온몸으로 평생을 살아온 선장과 선원들도 속수무책으로 가라앉는 배 속에 갇힌 포로일 뿐이었다. 어떤 이는 문을 열고 수면 위로 부상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마음뿐이었고 몸은 그의 의식과는 달리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단절이란 이런 것이었다.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경험, 죽음 앞에 선 두려움, 그런 것이었다.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단절 속에서 회상과 회한 그리고 공포와 함께 어둠 속에 사라져갔다. 어쩜 시간이 정지되어 있을 그런 세상 속으로…….

배가 전복되어 가라앉기 시작한 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거대한 파도에 일렁이

고 있는 구명보트와 둥둥 떠다니는 구명조끼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출렁거리는 타이어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물론 그것들이 사람과 함께 있으리라는 확신은 아무도 할 수 없었지만 강한 바람 속에 울부짖는 듯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미루어 사람이 어딘가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그리고 멀리 해안 쪽에서 경적과 함께 흐릿한 경광등 불빛이 높은 파도를 뚫고 나타났다. "애……앵!"

……

1951년 7월 27일 부산지검의 "제5편리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사발표가 있었다. 전 선주와 해사국 직원을 포함한 9명이 "증수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현 선주와 선박 승무원 9명에 대해서는 "선박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6개의 죄목으로 지방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동아일보-

1951년 8월 8일 국회조사위에서 "제5편리호침몰사고"는 재화중량톤수 17톤, 선령 24년이 된 노후한 선박의 정원을 54명에서 91명으로 불법 증원하였고, 사고 당일 정원을 초과한 170명의 승객을 태워 선장이 출항을 거절하였으나 선주와 승객들의 압력에 못 이겨 무리하게 출항을 감행한 결과 비롯된 참사임을 밝혔다. -동아일보-

1951년 8월 다대포 육군병참학교 운동장, "아…… 두송산 모퉁이에 한 맺힌 원혼, 신명은 아시나이까……" 금수현 씨가 작곡한 진혼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부 대표로 사회부 장관이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했다.

"정부는 유족과 실종자 가족분의 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군과 수상경찰이 합동으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번 일에 심대한 우려와 애도를 표하시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해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5명 구조, 97명 사망, 18명의 생사는 지금도 알 수 없다.

……

“얘들아, 우리 이번 수학여행은 배 타고 제주도로 간대. 선생님이 그러셨어.”
“배…… 무슨 배?”
“세월호.”

산문 최우수상 : 어린왕자와 고니

김자미

1.
한솔이는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갑니다. 입이 대자로 나왔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놔두고 한 달 씩이나 여행을 가는 부모님이 밉기까지 합니다. 겨울 방학을 할머니 집에서 지내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툭툭 차며 걷습니다. 할머니 집은 좁은 길을 따라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좁은 길 만큼이나 집도 좁습니다. 침대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더 싫은 건 고양이 울음소립니다. 고양이가 동네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한솔이는 할머니 집이 숨 막히는데 할머니는 방이 4개나 되는 한솔이네 아파트가 갑갑하다고 합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코딱지 만한 집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게 딱 하나 있긴 합니다. 옥상에서 바라 본 풍경은 쪼금 좋습니다. 멀리 바다도 보이고 툭 트여 시원하기도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밤하늘 별 만큼이나 예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옥상에 올라가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아파트가 갑갑하다고 하는 할머니 마음이 이해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달이나 지내야 하는 한솔이 답답한 마음은 옥상도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관광버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중국 사람들 같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볼 게 뭐 있다고 이런 곳으로 관광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놀이기구도 없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걷기만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텔레비전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오락 프로에 나오고부터 부쩍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할머니는 신이 났습니다. 관광객 덕분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네 시간, 힘도 안 들고 용돈까지 버니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한솔이는 할머니가 일을 하러 가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참견을 할 게 뻔하니까요.
어느새 할머니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할머니 집은 어린왕자와 사막여우 동상이 있는 맞은편입니다. 여전히 줄을 길게 섰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왕자를 좋아하나 봅니다. 한솔이는 <어린왕자>를 읽었지만 사진을 찍을 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교복을 입은 사람,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린왕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방긋 웃습니다. 요렇게, 저렇게 포즈를 바꿔가며 찍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지만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린왕자는 참 싫겠다.”
한솔이는 사진 찍는 걸 싫어합니다. 한솔이 아빠는 취미가 사진 찍기입니다. 한솔이는 매 번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문이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어린왕자는 하루 종일 낯모르는 사람들과 사진만 찍어야 합니다.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싫어. 나는 이야기 하는 게 좋은 데 아무도 이야길 하려들지 않아.”
한솔이는 주변을 돌아봅니다. 모두 사진을 찍거나 웃고 떠든다고 바쁩니다.
한솔이 말에 대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해질녘에 올래?”
한솔이는 또 주변을 돌아봅니다. 모두 사진을 찍거나 웃고 떠든다고 바쁩니다.
“해질녘에 와. 말할 기운도 없어.”
어린왕자 목에 두른 빨간 스카프가 휘날립니다. ‘나중에 봐.’ 하고 손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한솔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아무리 봐도 동상입니다. 동상이 말을 할 리 없습니다. 동상의 스카프가 휘날릴 수도 없습니다.
“빨리 안 오고 뭐해?”
앞서 가던 엄마가 한솔이를 부릅니다.

2.
“해질녘에 올래?”
자꾸 맴맴 돕니다. 할머니가 고구마를 먹으라는 데도 목소리가 귓가에 맴맴 돕니다.
한솔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과자 사러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해가 뒷산으로 넘어가 할머니 집엔 햇빛 하나 남아있지 않지만 앞산은 햇빛이 환합니다. 북적이던 마을이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야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도 둘만 있게 되었습니다. 한솔이는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를 바라보고 섰습니다.
“이리로 와 앉아.”
아까랑 같은 목소립니다.

한솔이는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왕자가 고개를 돌려 손짓합니다. 사막여우도 종긋 세운 귀를 까닥입니다. 한솔이는 눈을 비벼보고 볼을 꼬집어봅니다.
“꿈 아냐. 그러니까 이리로 와 앉아. 그런대로 경치가 좋아.”
어린왕자가 사막여우 사이를 톡톡 칩니다.
한솔이는 홀린 듯 어린왕자와 사막여우 사이에 앉았습니다.
“동상이 어떻게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지?”
“동상한테 힘들겠다고 한 사람도 네가 처음이야.”
어린왕자가 말합니다.
한솔이는 아직도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맞아. 네가 처음이야.”
사막여우가 거듭니다.
한솔이는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를 번갈아봅니다.
“우린 서로 통한 거야.”
한솔이는 아직도 어리둥절하지만 아이라곤 하나 없는 이 동네에서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는 사막으로 돌아가야 해.”
사막여우가 우- 소리를 냅니다.
“가면 되잖아.”
한솔이가 툭 던지다시피 말합니다.
“내가 가면 어린왕자는 어쩌고. 어린왕자는 밤을 무서워 해. 누군가 나대신 옆에 있어 줘야 한단 말야.”
“어린왕자도 가면 되잖아.”
“나는 여행 중이고 장미에게 인사를 하고 왔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사막여우는 작별인사도 없이 왔어. 지금쯤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을지 몰라.”
사막여우가 또 우-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립니다.
“내가 있어줄게. 방학동안 이곳에 있을 테니까. 그동안에 다녀와.”
어린왕자가 한솔이 어깨에 기댑니다. 사막여우가 부드러운 꼬리로 한솔이 목을 감싸줍니다.

3.
사막여우가 떠나고 어느 날.
“한솔아, 노을이 보고 싶어. 붉게 물든 노을 말야.”
“가자. 우리나라에서 노을이 좋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곳이 여기서 멀리 않아.”
어린왕자 말에 한솔이는 신이 났습니다. 며칠 째 똑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좀이 쑤시던 참입니다.
한솔이는 어린왕자를 데리고 아미산 전망대로 갔습니다. 아빠를 따라 여러 번 왔던 곳이라 훤합니다. 아빠랑 앉던 벤치에 앉아 아빠처럼 이야기 합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이곳을 모르면 간첩이야. 노을이 바다에 닿을 쯤 배 한 척이 들어오면 작품 하나 건지는 거야. 그런 때가 잘 없지만 말야.”
“정말 예쁘다. 의자만 돌려 앉으면 하루 종일 노을을 볼 수 있는 내 별도 아름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은 처음이야. 바닷물 사이, 사이로 늘어 선 모래톱은 더할 나위 없이 멋지다. 사막 같은데 사막하고는 완전 달라. 여우가 오면 꼭 보여주고 싶어,”
어린왕자는 감격해 눈물까지 흘립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멋지진 합니다.
빨간 해 한 덩이가 바다에 닿을락말락합니다. 붉은 물감을 풀어놓기라도 한 듯 바다가 발갛습니다. 먼 산으로 각각 다른 색이 켜켜이 펼쳐져 붉은 해는 더 붉어 경이롭습니다.
“저 새 좀 봐. 무척 크다.”
어린왕자가 가리키는 곳을 봅니다. 고니 무리입니다.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철새입니다. 사하구 상징 새이기도 합니다. 한솔이는 아빠한테 들은 것을 어린왕자에게 말해줍니다.
어린고니가 다리를 접니다. 고니는 태어나면 회색이다가 어른이 되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아빠한테 들은 것이지만 한솔이는 잘날 체를 합니다.
“어린고니가 다쳤나 봐. 가보자.”
어린왕자가 한솔이 손을 잡아끕니다.
“배가 있어야지. 저 곳은 바다야.”
“모든 것은 마음에 있어. 너와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야.”
한솔이는 어린왕자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를 다쳤니?”
어린왕자가 어린고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묻습니다.
“밀렵꾼의 총에 맞았단다.”

어른고니가 부들부들 떨며 말합니다.
“곧 시베리아로 떠나야 하는데 큰일이란다.”
어른고니가 울먹입니다.
“왜 못 가요. 가면 되지.”
한솔이가 생각 없이 내뱉습니다.
“고니는 다리가 중요해. 날아오르기 위한 도움닫기도 그렇지만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일도 하거든.”
어린고니와 어른고니가 얼굴을 맞대고 웁니다.
“너를 여기 놔두고 나만 갈 수는 없단다.”
“내년 가을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어린고니가 말합니다.
“곧 날이 따듯해져 올 텐데. 죽고 말 거야. 흑흑”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줄 게요.”
어른고니 말에 어린왕자가 밝게 말합니다.
“우리랑 있으면 돼.”
한솔이도 힘주어 말합니다.
“엄마랑 이별할 시간을 줄게. 이별을 잘 해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
어린왕자가 말합니다. 한솔이보다 어려 보이는데 어른 같습니다.
한참 만에 어른고니가 무리들 쪽으로 날아갑니다. 어린고니가 절뚝절뚝 다가옵니다.
“고마워.”
어린고니가 날개를 펼쳐들고 인사를 합니다.
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해가 잠긴 바다에서부터 밀려옵니다.
어린왕자, 어린고니, 한솔이는 문화마을로 돌아왔습니다.

4.
방학이 끝입니다.
어린왕자 옆엔 고니가 앉았습니다. 어린고니에게서 툰드라 이야기를 듣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막여우 보다는 고니지. 이제 여우가 와도 이 자리는 못 비켜.”
어린고니가 긴 다리를 곳곳이 세우고 날개를 펼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어머나 사막여우 자리에 고니가 있어.”
“이것 봐. 고니가 사하구의 상징 새래. 그래서 사막여우 대신 고니가 어린왕자 옆에 있는 거래.”
“사막 여우도 좋지만 고니가 더 잘 어울리네. 천연기념물이고.”
“사막여우는 사막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야지.”
“아직도 밀렵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고니 참 불쌍하다. 이제 고니가 명물이 되겠네.”
사람들은 동상 옆에 세워놓은 표지판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한솔이가 씩, 웃습니다. 어린왕자와 고니의 동상을 바라봅니다. 어린왕자와 고니도 웃고 있다는 걸 압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일요일에 올게. 난 여기가 너무 좋아졌어.”
어린왕자의 스카프가 휘날립니다. 고니가 노란 부리를 콕콕 찧습니다.
한솔이는 사막여우에게 부칠 편지를 흔들어 보입니다.

산문 우수상 : 아미산의 아기다람쥐와 도토리

최덕천

어느 가을 날 아침 아미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 내외가 플랜카드를 나무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쪽에서 세게 당겨 봐요.”
“알았어. 당신도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내 걱정 말고 꽉 좀 당겨보라니까요.”
다람쥐 내외는 티격태격하며 플랜카드의 줄을 당겼습니다.
‘도토리를 한두 알 가지고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게요?’
다람쥐 내외는 가장 먼저 아미산 입구에 플랜카드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여보! 내용이 조금 약한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훌륭한 것 아냐?”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인식되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한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알아듣고 도토리를 안 가져가겠지.”
“아니에요. 이 정도는 너무 약해요. 좀 더 센 내용이어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다람쥐 아내가 플랜카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람쥐 남편을 데리고 아미산 중턱으로 가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겨우내 다람쥐가 먹이부족으로 죽는 생각은 안 해 봤나요?’
“여보! 어때요?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럴싸하긴 한데 내가 쓴 플랜카드 내용이 좀 더 사람들에게 잘 먹힐 것 같은데.”
작년에 다람쥐 내외는 아미산 곳곳에 플랜카드를 매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올해는 가뭄이 심해 도토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보내야하는 다람쥐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주말이면 아미산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도토리를 주워 갔습니다.
그 때마다 다람쥐 내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다시 주말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아미산을 찾았고 도토리를 주워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쩌죠! 사람들이 우리가 쓴 플랜카드를 안 읽나 봐요.”
“그래도 다시 한 번 힘내서 이번에는 좀 더 커다란 플랜카드를 만들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넓은 장소에다가 매달아 봅시다.”
“알겠어요.”
“따라 오구려. 내가 어제 만들어 놓은 플랜카드가 있으니까 같이 나무에다가 매달아 봅시다.”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이 살아야 인간도 살지 않나요?’
‘도토리를 마구 주워가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은 하지 맙시다.’
‘도토리는 저희에게는 식량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결코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곳저곳에 다람쥐내외는 플랜카드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미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반응이었습니다.
플랜카드를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람쥐 내외는 나무 뒤에 숨어 도토리를 주워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저것 좀 보세요. 저렇게 많이 주워 가네요.”
다람쥐 아내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람쥐 남편은 더 이상 사람들이 도토리를 가져가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여보! 어디가요?”
다람쥐 남편은 다람쥐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고 혼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빠! 엄마! 힘내세요.”
아기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이번 겨울이 걱정이구나! 겨울이 오기 전에 도토리를 많이 모아 두어야 할 텐데 말이다.”
“엄마! 아빠!”
“왜?”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말해도 될까요?”

“뭔데?”
다람쥐 내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아기 다람쥐의 말을 자세히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빠와 엄마가 나무에 건 플랜카드는 약간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내일 직접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에 나타나 보려고요.”
“어휴! 그것은 절대로 안 돼.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잡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면 알게 될 거에요.”
엄마 다람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다람쥐도 아기 다람쥐에게 혼을 내며 위험하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 산에서 제일 빠른 다람쥐인 것 아시잖아요! 위험하다 생각되면 즉시 도망칠게요.”
“그래도 안 돼.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어느 부모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겠니?”
그날 저녁 아기 다람쥐는 엄마와 아빠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도 산에 오른 사람들은 도토리를 주워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람쥐 내외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다람쥐는 매일 아빠와 엄마의 근심 섞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빨리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방에는 아기 다람쥐가 쓴 한 줄의 메모지가 책상위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다람쥐 내외는 곧장 아기 다람쥐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을 오르던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람쥐다!”
“어머! 정말 다람쥐네!”
“와! 예쁘다. 나는 아미산을 오르면서 다람쥐를 처음 봐!”
“휴대폰으로 찍어야겠다.”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듯 아기 다람쥐를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기 다람쥐는 사람들 앞에서 모델처럼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기 다람쥐는 S라인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누워서 팔을 고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산을 오르던 사람들과 산을 내려오던 사람들에게 아기 다람쥐는 순간 대단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때다 싶어 아기 다람쥐는 주머니에서 도토리를 꺼내 먹는 시늉을 했습니다.
“어머 예쁘기도 해라!”
“도토리 두 개를 사탕처럼 두 볼에 가득 넣는 것 좀 봐!”
“도토리를 이빨로 깨물어 먹는 모습이 너무나 귀엽네!”
그러자 누군가가 도토리 하나를 아기 다람쥐에게 던졌습니다.
아기 다람쥐는 그 도토리를 주우러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토리를 던졌습니다.
아기 다람쥐 주위에는 많은 도토리들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람쥐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보세요.”
엄마 다람쥐는 아기 다람쥐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람쥐 내외는 머뭇거리며 사람들 주위를 맴돌다 아기 다람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다람쥐가 세 마리야.”
“다람쥐 가족인가 봐!”
“와우! 다람쥐를 한 마리도 보기 힘든데 세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은 내 생전 처음이야.”
“저 다람쥐를 배경으로 사진 좀 찍어 줘봐. 빨리!”
조금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기 다람쥐에 이어 다람쥐 내외도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자세를 취했습니다.
“엄마! S라인 몸매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럴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니?”
사람들은 다람쥐 엄마의 모습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다람쥐 아빠는 다람쥐 엄마가 자세를 취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 다람쥐는 계속해서 도토리를 먹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도토리를 하나씩 던졌습니다.
다람쥐 가족 주위로 던져진 도토리가 주위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도토리를 모두 다람쥐 가족이 있는 곳에 놓고 갔습니다.
다람쥐 가족이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도토리를 얻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웬 횡재에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아침부터 플랜카드를 달아도 소용이 없더니만 모델처럼 자세를 취해주니까 이렇게 많이 도토리를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도토리를 찾기 위해 아미산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순식간에 이 많은 도토리를 얻었으니 며칠간은 배부르게 지낼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두 아미산을 내려가자 아기 다람쥐는 사람들이 던져 준 도토리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수고했어!"
"죄송해요. 엄마! 아빠에게 허락도 안 맞고 저 혼자 행동해서요."
"아니다. 내가 너를 믿고 한번쯤 네 편에서 생각해 주었어야 했는데……."
"엄마! 아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토리는 정말 처음이지 않아요?"
"그래. 네 덕분에 도토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구나!"
다람쥐 가족은 사람들이 던져 준 도토리를 자루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서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다람쥐 가족은 평소에 도토리를 주우러 아미산을 오가며 겨우내 먹을 것을 대비했고 주말이 되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아미산에서 도토리를 주운 사람들은 다람쥐 가족에게 도토리를 던져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미산 이곳저곳에 걸어 놓은 플랜카드를 다람쥐 내외는 조심스럽게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가뭄이 심한 그 해 다람쥐 가족은 도토리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아미산을 오르는 사람들 덕분에 많은 도토리를 창고해 저장하여 추운 겨울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산문 가작 : 할아버지 찾기

김영호

"왜 이렇게 늦었니? 할아버지 기다리시겠다."

출입문 번호키 누르는 소리를 듣고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현관으로 달려 나옵니다.

"좀 씻고 갈게요."

"늦었잖니. 다녀와서 샤워하렴."

준이의 어깨에서 책가방을 벗기는 엄마 손에서 된장 냄새가 살짝 납니다. 할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시래기 된장찌개를 이제는 준이도 좋아합니다.

"나, 땀 많이 났는데…."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준이는 내려가는 엘리베이트를 다시 탑니다. 내부벽면에 붙은 광고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른 인성과 건강한 체력을 기르는 아이튼튼 태권도」 그리고 보니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 한 시간 가까이나 하교가 늦었습니다. 방과후 논술 수업도 있었고 태권도학원에서는 심사를 앞두고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데 산 쪽으로는 벌써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선 빌딩의 유리창이 석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립니다.

삐종삐종삐종, 찌르찌르지르르르~

산새 소리를 들으며 산길로 접어듭니다.

「솔바람음악당, 청마시비, 오태균음악비」 공원입구를 알리는 표지석이 바람에 목욕을 한 듯 다른 날보다 깨끗해 보입니다.

싱그러운 숲 향기가 코를 간지럽힙니다. 왜 이제 오느냐 하고 묻는 듯 새들이 머리 위에서 따라옵니다.

하교 후에 할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일은 준이의 일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추운 겨울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그렇게 해왔습니다. 준이가 4학년일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벌써 이 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시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를 쓰시지 않습니다.

치매를 앓아 고생하시던 할머니가 할아버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날부터 시 쓰기를 멈추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휴대폰까지도 없애 버리셨습니다. 원고지와 컴퓨터 대신 에덴 공원에 올라가시는 것이 할아버지의 새로운 소일거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시간을 공원에서 보낸 할아버지를 준이가 모시고 내려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하신 할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아빠가 준이에게 '할아버지 모시고 오기' 라는 특별과제를 준 것입니다.

"할아버지 모시러 가는구나."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공원을 내려오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먼저 인사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길을 산책하거나 운동기구에서 땀을 흘리는 어른들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솔길이 몇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지 산새들이 어느 나무에 많이 앉아 있는지도 준이는 이제 압니다.

봄이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 신록의 연초록 잎새, 하얗고 노랗고 빨간 풀꽃들, 소나무와 팽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 여름의 무성한 녹음도 준이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늦었구나."

철봉대에 매달려 운동을 하던 아저씨도 준이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도를 늦게 마쳤어요."

인사를 하며 걷는데 「부산시민헌장」을 새겨놓은 탑이 눈앞에 보입니다.

'가야와 신라 숨결 속에 낙동강의 얼과 금정산의 슬기가 담긴 부산은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민주의 새역사를 일궈낸 자유의 도시이다.'

이미 여러 번 읽은 글귀인데도 이해는 어렵습니다. 가야와 신라, 낙동강이라는 낱말만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산 아래까지 갈대밭이었단다. 이곳에 서면 낙동강과 을숙도가 한눈에 다 들어왔지."

그동안 할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림으로도 생생하게 그려낼 것만 같은 풍경이 떠오릅니다. 황금 햇살 속에서 춤을 추는 갈대숲을 향해 나룻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에덴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기 전에는 승학산에서 신선이 학을 타고 내려왔다고 해서 강선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단다.”

공원에 얽힌 이야기를 할 때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치고 표정은 해맑은 소년 같았습니다. 아마 남다른 추억이 할아버지 가슴속 깊이에 자리 잡고 있나 봅니다.

등나무 아래에 다다르자 십여 명 할아버지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는데도 한낮의 게임 열기는 아직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투놀이와 장기판이 펼쳐진 그 어느 평상에도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응? 준이 왔구나. 오늘은 먼저 내려가셨는데…. 오는 길에 못 만났니?”

하얀 중절모에 새빨간 셔츠로 잔뜩 멋을 부린 할아버지가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말합니다. 할아버지처럼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공원에 오를 때 할아버지와 벗이 되는 분입니다.

원래부터 할아버지는 화투놀이나 장기, 바둑을 즐겨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깨너머로 구경을 하거나 아니면 소나무 그늘에 혼자 앉아 있기를 즐기셨습니다. 하루하루 쇠약해지시는 듯한 할아버지, 요즈음은 말씀도 줄어들고 잡숫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 가족 모두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저 찻집에 계실지도 모르겠네.’

준이는 돌계단을 올라 허물어져 가는 건물 안으로 올라갑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찻집이었는데 폐허로 변했다고 할아버지가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곳입니다.

입구의 ‘솔바람’ 간판 위에 솔잎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네를 타듯 밧줄에 걸려있는 하얀 글자 모양에서 화가의 힘찬 손놀림이 느껴집니다.

준이는 조심조심 찻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이 서린 듯 눈앞이 온통 흐릿하고 뿌옇습니다.

“드디어 시인의 손주님께서 오셨네.”

알록달록한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준이를 맞아줍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레코드판을 쓱쓱 닦아 전축의 턴테이블 위에 놓고 바늘을 올립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산바람 강바람’ 동요가 흘러나옵니다.

‘솔바람’ 이라는 찻집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벽면에는 레코드 음반이 빽빽하게 꽂혀있고 허브차 향기는 실내를 달콤하게 감싸 줍니다.

햇빛 비치는 창가에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준이는 반가운 마음에 할아버지를 크게 불러 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런데 다시 보니 아무도 없는 빈자리입니다.

빈 탁자 위에 저녁 햇살이 식탁보처럼 깔려있습니다.

음악도 멈추고 허브 향기도 사라졌습니다.

레코드 음반이 놓였던 자리에는 뿌옇게 쌓인 먼지와 거미줄만 가득합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찻집을 즐겨 찾았다던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 상상의 세계에서 너무 빨리 빠져나온 것이 준이는 아쉽고 서운합니다.

‘옛날처럼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문밖으로 나오는데 작은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나뭇잎이 떠 있는 물속에서 작은 개구리가 헤엄을 칩니다.

‘개구리야, 너희들도 옛날이 그리워서 이곳에 살고 있니? 물이 마르면 어떡하려고?’

평상에 앉았던 할아버지들도 어느새 뿔뿔이 흩어져 가고 산속에는 개구리 가족과 준이, 그리고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

준이는 계단을 내려오며 다시 사방을 둘러봅니다.

햇볕이 떠나간 숲속에 어둠이 재빠르게 찾아듭니다.

야외음악당 무대 위에 천막으로 덮은 피아노가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건너편의 산길로 내려갑니다.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여러 번 갔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무성한 잡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시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한자로 된 낱말도 있지만 준이는 이 시를 줄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깃발' 이라는 제목의 시를 처음 읽어주던 날, 독백을 하듯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립습니다. 이제는 시도 죽었고 저도 죽었습니다."

준이가 늦게 올 때면 할아버지는 시비 앞에 앉아 기다리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찻집에도, 시비 앞에도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나룻배를 타러 강변으로 가셨을까요?

준이 마음에 슬슬 걱정이 밀려옵니다.

'정말 길이 어긋났나?'

그런데 공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외길뿐입니다.

핸드폰을 책가방 속에 두었기에 엄마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준이는 용기를 내어 오솔길 따라 더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풀잎들이 정강이를 스치자 살갗이 따갑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이고 고도를 낮추는 비행기 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들려옵니다.

"할아버지~"

준이는 다시 할아버지를 불러봅니다.

그러나 숲속에서는 아무 기척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산 아래 아파트 불빛만이 소나무 둥지 사이사이를 헤집고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강나루 건너 나룻배를 부르듯이 준이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때입니다. 오솔길 아래 어딘가에서 부스럭부스럭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준이냐?"

할아버지 목소리 같은데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불러 봅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맞죠?"

어둠 속 나무 밑에서 누군가가 일어섭니다.

멀리에서 보아도 구부정한 어깨와 조그만 몸집, 할아버지가 틀림없습니다. 준이가 달려가 안기자 할아버지는 어지러운 듯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서 계십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런데 왜 여기에 계셨어요?"

"올라가서 기다리려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지 몰랐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사방이 어두워지는 줄을 모르셨나 봅니다. 준이가 걱정하며 찾아다닌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말투입니다.

"왜 여기에 있었냐 하면…. 그게, 할머니를 처음 보았거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대답을 하는 할아버지의 말이 엉뚱합니다.

"예?"

"녀석, 놀라기는…. "

"아니, 할머니를 처음 보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구요?"

혹시 할머니처럼 정신이…?. 준이는 순간적으로 할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느 날과 전혀 다름없이 온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강변, 갈대밭, 나루터, 물레방아, 그동안 반복하여 들어온 동화의 목록 속에 할머니와의 첫 만남은 들어있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꺼내신 뒷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큰 소나무가 작은 다복솔이었을 때,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봄 소풍을 이 언덕으로 왔었지. 바로 옆의 잔디밭에는 여고생들이 소풍을 와서 먼저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멀리에서 보아도 눈에 띄게 예쁜 여학생이었단다."

"……"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준이는 대답 대신 가만히 듣기로 했습니다.

교복의 이름표를 보고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등굣길에 편지를 전해 준 이야기, 시를 베껴 쓰고는 자신의 글처럼 자랑한 이야기, 말 한마디 못한 채 빵만 먹고 헤어진 첫 데이트…. 실타래를 풀어가듯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줄줄 이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바로 시였네요? 언젠가 말씀하셨잖아요. 시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청마시비」앞을 지나며 준이 입에서는 불쑥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태권도 그만두고 시인이 될까 봐요.”

“우리 준이가 시인이 된다고? 핫핫하….”

오랜만에 듣는 할아버지의 유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래야 예쁜 여학생을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준이도 입을 크게 벌려 웃는데 하루살이 벌레들이 마구잡이로 달려들었습니다.

“준아, 이 손 놓아보렴. 할아버지 혼자 잘 걸을 수 있어.”

평지에 이르자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발걸음을 떼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준아, 준아!”

대나무 숲 아래에서 랜턴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아빠와 엄마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 왔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모시고 내려가고 있어요.”

준이의 고함에 놀란 새들이 푸드득푸드득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끝)